

외국인들에 대한 뜻비슷한말교육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장 혁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말은 표현이 풍부하여 복잡한 사상과 섬세한 감정을 다 잘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을 격동시킬수 있고 울릴수도 있으며 웃길수도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54페이지)

외국인들에게 표현이 풍부한 우리 말을 교육하는데서 뜻비슷한말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뜻이 서로 비슷한 단어부류 즉 뜻비슷한말을 정확히 가려쓰는것이 비교적 어려운 문제로 되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은 우리 인민들에 대한 우리 말 교육과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언어특징에서 차이를 가지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영어나 로어와 같은 인디아, 유럽계언어에 속하는 굴절어에서는 굴절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단어형태의 어음론적구성의 변화가 문법적의미를 표현한다. 그런가 하면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는 주로 보조어와 어순에 의하여 문법적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교착어인 조선어는 주로 형태변화에 의해 문법적관계를 나타낸다. 조선어의 글자는 자모글자로서 소리마디별로 자음과 모음을 묶어서 표기하는 독특한 글자이다.

이처럼 세계의 모든 언어들은 다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자기 민족의 생활에 복무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한 언어적특징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상대적으로 공고하고 습관적인것으로 하여 서로 다른 언어습득에서 하나의 어려운 점으로 된다.

그것은 또한 습득나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것과 관련된다.

모국어교육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 때

이루어지지만 외국어로서의 조선어교육은 대체로 청소년이나 성인이 되어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언어습득은 나이가 어릴 때 하는것이 리상적이다.

이처럼 같은 하나의 언어인 조선어를 놓고 그것을 모국어로 배우는 경우와 외국어로 배우는 경우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있다.

그러므로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는 단어나 성구와 같은 어휘적수단, 토나 보조어와 같은 문법적수단들을 뜻에 맞게 옳게 가려쓰도록 원리적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특히 뜻비슷한말들가운데서 문맥이나 정황에 맞는 적중한 어휘를 선택사용하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뜻비슷한말은 어휘들간의 의미적류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미적련관어이다.

조선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류학생들에게서 어휘습득단계인 기초교육에서는 어휘의 미의 공통성에 기본중점을 두고있는데로부터 뜻비슷한말을 구별하는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초단계를 벗어나 어휘소유량이 늘어나고 사물현상의 다양한 속성, 운동 등을 표현해야 하는 비교적 높은 언어교육단계에서는 뜻이 서로 비슷한 단어들가운데서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워하는것을 볼수 있다.

이로부터 지난 시기 류학생들이 조선어를 배우는 과정에 나타난 오류문장들을 통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뜻비슷한말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히려고 한다.

례: 자체로 이런 질문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의 실례는 명사 《질문—문제》의 뜻비슷한말계렬에서 《질문》을 선택한 오류문장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나 생활과 관련해서는 명사 《질문》이 쓰이지 않는다.

례: 그는 학교사업에서 제기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그는 학교사업에서 제기된 많은 질문들을 해결하였다.×

뜻비슷한말사용에서 나타나는 오유현상은 대체로 뜻비슷한말을 이루는 어휘들 가운데서 문맥이나 정황에 맞는 적중한 어휘를 선택하지 못한것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뜻비슷한말들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쓴 문장에 대하여 대체로 단어결합이 부자연스럽거나 어색한 감을 느낀다.

비록 사용에서 습관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따져볼 때 우리 사람들은 뜻비슷한말들간의 차이를 단어들간의 결합관계를 놓고 따져보는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뜻비슷한말이 일정한 의미적공통성에 의해 련관되면서도 그 차이가 많은 경우 단어결합관계에서 표현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의 경우에 이것은 결코 쉬운것이 아니다.

이로부터 외국인들에 대한 조선어교육에서는 뜻비슷한말구별방법과 관련하여 일련의 문제가 나서게 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뜻비슷한말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는 첫째로, 뜻비슷한 관계에 있는 어휘들사이에 존재하는 뜻폭의 차이를 잘 인식시키는것이다.

뜻폭은 단어가 가지는 뜻의 넓이이며 그것은 뜻비슷한말들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결합관계를 조건짓는다.

례: 곡식들은 논밭에서 푸르싱싱하게 성장하고있다.

우의 실례는 동사 《자라다-성장하다》의 뜻비슷한말계렬에서 《성장하다》를 선택한 오유문장이다.

동사 《자라다》와 《성장하다》는 뜻비슷한말을 이루지만 뜻폭이 다른것으로 하여 문장구성에서 바꾸어 쓸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두 단어는 다같이 《자라는것 또는 자라서 점점 커지는것》이라는 공통적인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성장하다》가 우의 공통적인 뜻만을 나타낸다면 《자라다》는 《①(생물)점점 커지다, ②(자질, 능력 같은것이) 커지고 발전하다, ③어떤 대오나 력량이 커지다, ④량적으로 불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뜻폭이 더 넓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을 제외한 동물이나 식물과 관련하여서는 동사 《성장하다》가 쓰이지 않는다.

례: 대학구내에 심은 잔디가 몰라보게 잔랐다.○

대학구내에 심은 잔디가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고유어-한자어의 뜻비슷한말에서 많이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고유어-한자어계렬의 뜻비슷한말들에서 하나의 고유어에 두개이상의 뜻비슷한 한자어(혹은 하나의 한자어에 두개이상의 고유어)가 대응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류학생들속에서 이러한 오유가 나타나게 된것은 고유어-한자어의 뜻비슷한말을 습득하는데서 공통성에만 중점을 두고 차이성을 홀시한것과 관련된다.

외국인들에 대한 뜻비슷한말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는 둘째로, 단어결합에서 뜻비슷한말들간의 차이를 잘 인식시키는것이다.

단어결합은 문장의 구성재료로 되는 두개 또는 그 이상의 단어들이 의미적으로나 문법적으로 결합된것으로서 해당 언어의 민족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언어표현형식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 말의 뜻비슷한말들에는 단어결합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옳게 구별해보지 못한데로부터 일부 뜻비슷한말사용에서 오유가 나타난것을 찾아볼수 있다.

례: 이 년에 나는 22살입니다.

우의 실례는 명사 《해-년》의 뜻비슷한

말계렬에서 《년》을 선택한 오유문장이다.

《년》과 《해》는 다같이 해를 세는 단위로 쓰이지만 단어결합에서는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두 단어가 고유어와 한자어라는 언어기원의 차이로부터 서로 같은 기원의 단어들과 어울릴것을 요구하는것과 관련된다고 볼수 있다.

즉 《해》는 고유어로서 《한(하나), 두(둘), 세(셋)》 등의 고유어와 어울리며 반대로 《년》은 한자어로서 《일, 이, 삼》 등의 한자어들과만 어울려 쓰인다.

- 한해, 두해, 이해, 그해, 전해, 다음해 ○
- 일해, 이해 ×
- 일년, 이년 ○
- 한년, 두년 ×

례: 12월 중순부터 래년 1월까지 제일 추운 때이다.

우의 실례는 명사 《래년—명년—다음해》의 뜻비슷한말계렬에서 한자말어휘인 《래년》을 선택한 오유문장이다.

한자말어휘인 《래년, 명년》은 《올해다음에 오는 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구체적인 년대를 가리킨다. 즉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다음해를 가리킨다. 그러나 《다음해》는 우의 뜻외에 《어떤 일정한 해의 바로 그 다음으로 오는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의 실례에서 말하는 《1월》은 《올해다음에 오는 해》가 아니라 《일정한 해의 다음으로 오는 해》를 의미하기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다음해》를 선정해야 옳은것으로 된다.

외국인에 대한 뜻비슷한말교육에서 나서는 문제는 셋째로, 뜻비슷한말들이 나타내는 양태적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여 습득시키는것이다.

양태성은 문장에서 이야기되는 내용과 현실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태도를 나타내는 문법적범주이다.

문장에서 양태성의 범주는 술어의 범형태나 양태적보조어, 양태역양 등에 의해 표현되기도 하며 양태부사와 같은 양태어에 의

해서도 표현된다.

양태부사는 확신, 가정, 추측, 의혹, 요구 등과 같은 양태성의 의미를 문장에 주는 부사로서 말하는 사람이 진술전체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양태부사들가운데도 의미적공통성을 나타내는 뜻비슷한말들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데로부터 오유가 나타나는것을 볼수 있다.

례: 아무리 말하여도 그는 마침내 가지 않았다.

우의 실례는 부사 《마침내—끝내》의 뜻비슷한말계렬에서 《마침내》를 선택한 오유문장이다.

《마침내》는 《이제야, 드디어》라는 뜻으로, 《끝내》는 《끝까지, 드디어》의 뜻으로 쓰이는데 우의 실례에서는 《마침내》가 아니라 《끝내》를 쓰는것이 옳다.

- 마침내 성공하였다.○
- 마침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 끝내 성공하였다.○
-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단어결합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마침내》는 《끝내》와 달리 부정표현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

- 마침내 식사를 하지 않았다.×
- 마침내 우기였다.×

《마침내》에는 《끝내》가 가지고있는 《끝까지, 드디어》라는 의미 즉 진술내용에 대한 확신의 양태적의미보다는 희망이나 긍정의 의미가 들어있다.

양태부사를 비롯하여 양태적의미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는 감정정서적뜻빛깔에서와 같이 어휘적의미로 표현되는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차이를 정확히 인식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류학생들속에서 뜻비슷한말을 정확히 가려쓰도록 하기 위한 조선어교육방법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조선어교육을 새로운 과학적 토대위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야 할것이다.